



지·상·연·수·지·상·연·수·지·상·연·수·지·상·연·수·지·상·연·수

제145회 발명교실

4월13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5회 발명교실이 지난 4월 13일 발명창러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신성산업 대표 신건영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현철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 사례를 긴추려 소개한다. <이두성 記>

휴대용 레토르트 파우치 가열기 발명가

신성산업 대표 신건영

“한약을 태우기 위하여 매번 물을 끓이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레토르트파우치’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말이다. 풀어쓴다면 한약을 다려서 담은 비닐 용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발명품이라 하겠다. 요즈음에 건강을 위해 한번쯤 한약을 달여 먹은 사람은 한약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남을 수 있는 길은 제품의 독특함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이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였다.

것을 경험 하였을 것이다.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을 쉽게 해결한 발명가가 신건영씨이다.

‘저는 영세한 소기업이 살아





하루는 한약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여 살펴본 결과,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고 따뜻한 물에 데우던 한약이 그만 너무 뜨거워져 봉투가 터지는 바람에 한약이 다 쏟아진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엇을 만들어 보고자 소재를 찾던 발명가 신씨에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전에는 '믹싱기능을 갖는 마이크로폰 장치'를 만들어 '93 대전엑스포 공식상품으로 지정 받은 경험 있는 그의 기술력에는 충분히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더구나 자신이 만든 마이크로폰 장치가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래방 기기로 사용이 많은 터라 자신감은 더욱 넘쳤다.

그의 판단은 간결하고 단순했다.

일단, 레토르트파우치를 손상없이 데우는 방법을 고안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레토르트파우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고 안쪽에는 열을 낼 수 있는 발열소재를 부착시켰다. 그리고 일정온도에서는 더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꺼내 먹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처음부터 내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자본으로 직접 상품화하여 성공시켜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명가 신씨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남의 자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상품화를 하다보니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생산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의 반응도를 넓히

기 위해서는 소량생산하는 대신에 제품에 대한 완벽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 갔다.

그러다보니 요즘같이 상품의 사이클이 짧아지는 시대에 기술축적을 충분히 이루어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자기가 지난 약조건이 오히려 호재로 바뀐 것이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레토르트파우치 가열기가 지난 문제점도 물론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고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열선의 부식이 심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소량생산이 되다보니 생산비용이 높아 제품의 용도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발명가 신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이 만든 레토르트파우치 가열기의 시장 형성기를 길게 잡고 싼 가격의 소품일지라도 사용자가 만족해 하는 제품개발과 생산비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개발하기로 마음 먹었다.

제품에 대한 출원은 지난 94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대한 홍보가 남아 있었다.

홍보에 대한 방법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리는 전시회에 모두 출품하여 국내대회와 세계대회를 휩쓸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보였다. **발특9604**